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2월 30일(주일) 제1227호



사진은 지난해 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 각 캠퍼스 본당 (12월 31일) (1월 1일)

2018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표어로 내걸고 힘차게 달려온 온누리교회가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를 드린다. 2018-2019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는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송구영신예배(12월 31일)는 서빙고와 양재 오후 7시, 9시, 11시, 부천, 수원, 대전, 인천 오후 9시와 11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는 오후 11시에 드린다. 말씀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포한다.

신년예배는 2019년 1월 1일(화) 드린다. 서빙

고와 양재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부천, 수원, 대전 오전 9시 30분, 인천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는 신년예배가 따로 없다(표 참조).

2019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1월 6일과 13일 선교헌금 작정 행사를 시작으로 2월 11일~13일 목회사관학교, 3월 1일 순장영성수련회, 4월 15~19일

캠퍼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신년예배
서빙고	1부 오후 7:00, 2부 오후 9:00, 3부 오후 11:00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양재	1부 오후 7:00, 2부 오후 9:00, 3부 오후 11:00 *양재 환승주차장만 이용(서울은행)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양재 환승주차장, 일동제약 주차장 이용(서울은행)
부천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9:30
수원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9:30
대전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9:30
남양주	오후 11:00	없음
인천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10:30
평택	오후 11:00	없음
강동	오후 11:00	없음
양지	오후 11:00	없음

고난주간 심야예배, 5월 15~16일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6월 12~14일 마리아행진, 7월 29일~8월 3일故 하용조 목사 8주기 추모주간, 9월 22일 추수감사주일, 10월 16~18일 부흥축제,

11월 6~7일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11월 30일 임직식, 12월 7일 장로장립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의 바람이 온 누리에!

1월 6일과 13일 '2019년 선교헌금' 작정

온누리교회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1월 6일과 13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2019년 선교헌금 작정 행사'를 실시한다. 선교헌금 작정 행사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 선교헌금은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신규 작성란'에 가입하면 된다. 기존 자동이체 후원자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작성란'에 해당 부분을 작성하면 된다. 소속 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작정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현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을 적고,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를 선택해야 한다. 현금봉투

방식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후원자들도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한다.

2018년 온누리교회 선교는 열매가 풍성했다. 2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며 2천/1만 비전을 확장했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교제하고 훈련받는 장(場)이 될 제주Acts29훈련센터 건축을 시작했다. 국내외 선교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선교컨설팅을 받으며 내실을 다졌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올해도 성도님들이 동참해주셔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패션(Passion) 2019' 개최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차세대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Passion) 2019'가 'School Changers'를 주제로 한동대학교 효암캠퍼스에서 막 오른다. 1차 2019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양재, 도곡, 수원, 부천, 강동, 평택, 양지, 안산M센터 소속 청소년, 2차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포항 및 경상지역 청소년과 교사, 3차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빙고, 대전, 인천, 남양주, 서산 및 태안 온누리교회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6만원.

문의: 02-3215-3523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한창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제단을 쌓기 위해 이른 새벽에 교회로 향하고 있다. 졸려서 눈을 다 못 뜬 성도, 까치집 머리채로 엄마 손에 이끌려 나온 아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老母)를 부축하고 나오는 중년의 딸 등 성령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추위도 잊고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성도가 있다. 2007년부터 40일 새벽기도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완주하고 있는 최지현 집사(S브릿지 공동체, 동화책 창작소 원장)다. 최 집사는 지금까지 나눠준 40일 새벽기도회 책자, 완주하고 받은 퍼즐과 엽서, 말씀 카드 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손때 묻은 새벽기도회 책자들을 가보(家寶)로 물려주고 싶다는 최지현 집사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돌아온 탕자, 새벽기도를 만나다

2007년부터 40일 새벽기도회 완주하는 ‘최지현 집사’



12년째 40일 새벽기도회 완주하고 있는 최지현 집사(우). 그동안 모아온 새벽기도회 책자들(좌).

“새벽기도 하러 갈 때 보는 어스름한 새벽하늘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없어요”

최지현 집사는 입술이 닳도록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대한 예찬과 은혜를 쏟아냈다. 2007년부터 햇수로 12년 동안 40일 새벽기도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완주했다고 하기에 의심의 눈초리로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참 신기하게도 몸이 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간만 되면 아무리 피곤하고 늦게 잠에 들어도 새벽이면 꼭 눈이 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 한줄기 빛이

12년째 40일 새벽기도회를 완주하고 있는 최 집사의 신앙 이력이 대단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온 탕자였다.

“모태신앙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잘 다녔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고등부에 들어가니까 교회 행사 때마다 데코를 시키더라고요. 시켜서 하긴 했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기쁨이 없었거든요”

신앙의 위기도 찾아왔다. 전에 다니던 교회

가 분열하고, 담임목사가 바뀌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든다고 교회 사택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사모님이 전기세 나간다고 아무 말도 없이 불을 딱 끄고 나가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당시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저만 대학에 합격했는데 목사님이 대학입시에 떨어져서 우는 애들 앞에서 저를 축하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더 이상 친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파묻혀 살고 싶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술도 못 마시면서 술자리에는 끝까지 있었어요. 술 취한 사람들 택시 태워 보내고, 옷 챙겨주고, 뒤치다꺼리를 했어요. 클럽도 다니고 세상 문화 속에서 놀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놀아주더라고요”

세상 문화와 겹도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도 벗어나지 못했다.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다. 그렇게 방황하다 불현듯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깬데 주일이었어요. 더 이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교회가 불까?’라는 생각이 파닥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자고 했었

어요”

그 택시 기사가 그녀를 온누리교회로 데려갔다.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택시를 타면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가자고 하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 교회가 아닌가보다 하고 온누리교회로 간 거였어요. 어쩐지 택시비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웃음).”

술김에 교회를 다시 찾은 셈이었다. 다시 찾은 교회는 그녀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었다.

“술 마시고 잠이 안 와서 새벽예배에 가면 목사님이 해장국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교회 등록도 안 했던 때였어요. 2년 동안 교회 등록도 안하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등록했어요”

교회를 다시 다니니까 정말 재밌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40일 특별새벽집회(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전 이름)였다. 그때가 2007년 1월이었다.

“처음에는 뭇도 모르고 나왔어요.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 왔는데 본당에 못 들어갔어요. 오기가 생겨서 다음날에는 새벽 3시 50분에 왔어요. 사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라기보다 재미로 왔던 것 같아요.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즐겁더라고요. 하루는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새벽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넓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고 전율이 일어났어요. 클럽 불빛보다 밝고 강렬한 불빛이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최 집사는 매년 연말 시작되는 40일 새벽기도회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철없는 어린이가 같던 제가 40일 새벽기도회를 완주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40일 새벽기도에 출석한 지 햇수로 12년째 되었으니까 제 신앙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거죠. 정말 신기하게 예전에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귀 알아듣는 성도가 되었어요”

신앙의 사춘기 시절도 있었다. 그 재미있던 40일 새벽기도회가 괴로운 자리가 된 적도 있었다.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못 알아들어서 새벽에 들은 설교를 출근하면

서 또 듣고, 퇴근하면서 또 들었어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몸도 많이 아팠고,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로 옮겨야 하는 시기라고 믿고 있었어요. 마음에 절망감이 차오르는 데 삶의 변화는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기도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침체기였다. 그래도 새벽에 깨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마다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긴 어둠의 터널 끝에 한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금 돌아켜 보면 그 시간이 제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리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하루하루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이 꽃히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말씀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앓기까지 했단니까요. 성령의 불 주사를 맞은 느낌이에요”

작정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녀는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고백했다.

“지난여름 아웃리치를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한 감사기도, 내년 여름 아웃리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요. 작년에는 저녁식사기도도 40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재정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웃리치를 못 갈 상황이었는데 한 학부형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매년 아웃리치 가는 제 모습이 감동이라고 하시면서요. 또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었는데, 3대가 함께 아웃리치를 가는 집사님 가정을 보며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새벽기도회에 동참하면서 드린 기도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있음을 확인하고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 집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들뜩니다. 어수선하고 바쁠 때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8~20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바빴고, 역사 지도자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지극히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분별하고,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목자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소식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했는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왕궁에 있는 왕이나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시점은 예수님 출생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나오는 것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차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계실 때 경배하러 가장 먼저 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이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목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기쁨의 소식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은 양을 지키며 양 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 차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들에서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삶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악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양 떼와 뒹굴며 살아가는 목동들이 일반 사람들과 삶을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실 때 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사회는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정보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정보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아무렇게 다뤄진다면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신분 사회에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전해지고 다뤄지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장 중요한 소식이자 가장 긴급한 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제외된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게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일지

라도, 몸에서 냄새가 나서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버릴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제외된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바로 목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목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 주었고”(15~17절).

‘서둘러 가서’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전해진 소식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리셨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가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살펴보고나 시간을 허비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기업가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자신의 달력을 쳐다보고 일정을 맞춰보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들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회로부터는 소외되었지만 믿는 그대로 반응하고 서둘러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노틀담 대학에서 가르쳤던 몰튼 케세이라는 교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목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셨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 별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소식을 전해주셨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집에서 편히 잠을 자던 사람들 꿈속에서도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잠자리가 너무 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관 주인에게도, 해룻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목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말을 진실 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서둘러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
천사도 존재하고, 악한 영도 존재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들은 사실 능력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자연의 세계에 문을 닫지 마십시오. 보이는 자연 물질,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지 마십시오. 천사도 존재하고,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채널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온누리가 맞이하는 새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된 ‘보석 같은 사람들’ 크리스천의 이웃사랑 ... 후원은 기본, 마음까지 나눈다

크리스천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 없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보석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날씨가 추워질수록 고달픈 사람들이 있다. 난방비는 고사하고 한 끼니 먹을 음식조차 마련하기 힘든 이웃들이다. 마음이 외로운 안타까운 이들도 많다. 너무 외롭고 서러워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외로운 이웃들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이웃사랑은 물질적인 후원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후원은 기본, 마음까지 나눠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보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웃사랑을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복음은 마음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이웃들의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참된 이웃사랑이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마음만 있으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이웃들은 삶이 변화된다. 삶이 통째로 바뀐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난 22일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샹티 형제와 아쇼크 형제도 그랬다.

인도에서 온 샹티 형제는 요도관이 축소되는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너무 아파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샹티 형제는 온누리교회 ‘헵시바의료팀’을 만나고 나서야 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샹티 형제가 병원 갈 때마다 양옥진 선교사(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늘 함께 있었다.

“양옥진 선교사님은 제가 아플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병원에 가셨어요. 양 선교사님이 제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양 선교사님은 저의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강동 온누리교회 금홍사역팀.

헵시바의료팀은 온누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약사들이 모여 결성한 의료 선교팀이다. 매월 한 번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쇼크 형제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그를 몹시 괴롭혔다. 말 못할 외로움과 괴로움을 호소할 때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줬다.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귀한 친구들도 있다. 온누리 호스피스 양지요양센터팀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한 달에 두 번 온누리요양센터에 방문해서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정일교 권사(온누리 호스피스 양지요양센터팀)가 잊을 수 없는 일화를 들려줬다.

“한 어르신께 세 번째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 어르신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팀원들이 함께 모여 그 어르신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께 천국과 복음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세 시간 뒤 그 어르신이 소천하셨습니다.”

양재 병원심방사역팀은 환우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지난 11월 92세 노모를 심방해달라는 한 성도의 요청으로 어느 요양병원에 방문했었다. 양재 병원심방사역팀이 92세 어르신을 위해 기도하는 데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드려도 되냐고 물었다. 그 어르신들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 병실이 기도와 찬양 소리로 가득 찼다. 함께 예배 드린 어르신들 중에는 한쪽 팔이 없는 분도 계셨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도 계셨지만 모두가 정성을 다해 예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믿지 않는 어르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기도 했다.

강동 금홍사역팀은 이웃들의 정말 좋은 친구다. 강동 금홍사역팀은 7년 전부터 2주에 한 번씩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에 반찬을 나눠주고 있다.

김구원(가명, 84세) 어르신은 5년째 강동 금홍사역팀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구영석 집사(강동 온누리교회)는 매주 주일 장제가 있는 정민음(가명, 49세) 형제의 아이들을 씻기고 강동 사랑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된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중심에 사회선교부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야 할 이웃들이 너무 많다. 재소자, 가출 청소년, 환우, 독거노인, 탈북민, 미혼모, 이주민 등 그 대상을 셀 수 없을 정도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사회선교부가 있다.

사회선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웃사랑 실천은 ‘1다락방 1사역’이다. 각 공동체 다락방별로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 도움이 필요한 기관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재정지원, 식사봉사, 예배봉사, 재능기부 등을 실천하고 있다. 개인, 교회, 기관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부터는 ‘엔젤트리’ 행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고 있다. ‘부채 탈출119’와 ‘청년벤처포럼 어벤져스’ 등 채무와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다.

농어촌선교팀, 새사람사역팀, 한누리사역, 맘앰맘스사역팀, 제이홈(J Home) 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과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재정을 지원하고, 중보기도와 아웃리치 등으로 섬기고 있다. 미자립교회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이다. 재소자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교육도 하고 있다.

한누리사역은 탈북민을 섬기는 사역이다. 한누리사역에서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맘앰맘스사역팀은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고 있고, 제이홈(J Home)은 입양에 관심 있는 가정에 입양방법과 과정을 안내해주고 있다.

선교사와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도 있다. 온누리M센터(안산, 화성, 평택, 김포)를 주축으로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청년부에서는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하고 전도도 하는 ‘사랑애티움’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고

이웃사랑은 복음 그 자체다



권득한 장로
(사회선교본부)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봉사활동과 물질적인 후원으로만 생각한다. 우리는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이웃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

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마 4:43).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복음을 영혼구원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이웃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굶주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마 4:18).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가 실천하는 섬김과 구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이웃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게 되는 일종의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무엇일까? 미가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 되기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미 6:8).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온전한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미가서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어려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돈, 먹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에게 미개한 종족이라는 라벨을 붙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전승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하지만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하사한다는 느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선행을 행하기도 한다.

실례로 강남이 개발될 시기에 한 건설업자가 판자촌을 없애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을 임대 아파트로 이주시켰다. 임대 아파트는 난방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어서 판자촌 주민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판자촌에 살 때는 공용 개수대에서 찬물로 세수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웃들과 만날 수 있었다. 만날 때마다 수다를 떨고 일상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어졌다. 특별한 이유가 생겨야만 이웃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다. 흠집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무작정 집을 지어주고, 수도시설을 만들어주고,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크리스천의 이웃사랑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크리스천의 이웃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이웃사랑과 달라야 한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려운 이웃들의 진짜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섬김 받는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된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다.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하려 한다.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은 포천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그곳을 격주로 방문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탈북민 사역을 맡고 있는 한누리사역본부는 탈북민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세심히 돌보고 그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픽업도 해준다. 한누리사역본부의 사랑에 많은 탈북민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 몇 분이 남대문5가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인근 야외 공원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다. 예배를 야외 공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님의 도움으로 예배처소가 마련되었다. 작은 기도모임이 지금은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성장했다. 결국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쪽방촌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어려운 이웃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주위를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다. 가령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줄 수 있다. 이웃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경비원 아저씨와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친절을 베풀고 밝게 인사해보자. 이웃사랑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된다.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사람은 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 집 밖에서는 착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가족에게는 매우 난폭하다.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직장동료부터 먼저 사랑해야 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그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엡 4:1-3).

“망설이지 말고 재능기부로 선교하세요”

좋아하고, 잘하고, 열매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선교사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선교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를 ‘재능기부 선교’라고 한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선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면서 그 의미와 뜻이 매우 깊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는 것만큼 중요하고 적절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후원사역팀’을 운영하면서 재능기부 선교사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선교지와 선교사,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도록 돕고 있다. 현재 온누리교회에는 재능기부 선교사가 737명 있다.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박민석 형제, 김영신 자매 부부(가운데)의 재능기부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김포M센터 차세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마 25:26).

달란트를 땅에 감취둔 종을 꾸짖는 주인의 말이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고,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선교에 활용하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재능기부를 적극 추천한다.

재능기부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정의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만 선교사가 아니다.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자신의 달란트를 선교를 위해 사용하면 그 또한 선교사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한 성도들을 ‘재능기부 선교사’라고 부른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에서는 ‘후원사역팀’을 운영하면서 재능기부 선교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온누리교회 재능기부 선교사들은 크게 선교사 자녀들의 학습을 돕는 ‘교육 그룹(Teaching group)’, 통/번역, 영상 및 IT를 지원하는 ‘소통그룹 (Communicating group)’,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힐링 그룹(Healing group)’, 예배 및 차량, 숙소, M미션 등을 지원하는 ‘

서빙 그룹(Serving group)’ 등 총 4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재능기부 선교사 737명이 활동하고 있다. 재능기부 선교사들은 올해 약 200여 건의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번역 관련 재능기부 요청이 가장 많았고, 숙소와 차량 지원 분야를 섬기는 재능기부 선교사가 요청에 비해 가장 적었다.

재능기부 선교사를 아시나요?

누구나 재능기부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망설이고 본다.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능기부에 대한 명백한 오해라고 말해주고 싶다. 기타리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선교현장에서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다.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기타 연주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이면 충분하다.

찬양과 예배 섬김도 아주 훌륭한 재능기부가 될 수 있다. 지난 주일(23일) 김포M센터 차세대 예배에 10여 명의 차세대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박민석 형제와 김영신 자매 부부를 만났다. 그들 부부는 김포M센터 차세대 예배를 섬기는 재능기부 선교사다. 찬양에 맞춰 율동을 하는 김영신 자매를 따라 차세대들이 기뻐 뛰며 춤을 췄다. 그 시각 박민석 형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있었다.

지난해 오픈한 김포M센터 차세대 예배에는 찬양과 율동을 섬겨 줄 봉사자가 없었다. 민경윤 선교사 혼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공과 공부를 인도했다. 예배 전반을 혼자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민 선교사가 녹초가 되곤 했다. 돕는 손길을 애타게 찾던 민 선교사가 온누리M미션에 재능기부자 요청을 했고 박민석 형제와 김영신 자매가 연결됐다. 정말이지 마른 사막에 단비 같았다. 박민석 형제와 김영신 자매는 재능기부자를 찾는 광고 영상을 보고 한신했다.

“어디든지 우리 부부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원했어요. 안산M센터를 한 달 동안 견학했는데 그때 김포M센터를 소개해줬어요. 안산M센터보다는 김포M센터에 저희 부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봉사자가 정말 귀했던 김포M센터 차세대 예배에 박민석 형제와 김영신 자매가 재능기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부터 안 그래도 역동적인 김포M센터 차세대 예배에 더욱 활기가 넘쳤다. 김영신 자매는 토요스쿨 봉사까지 자처했다. 토요스쿨에서 만나는 선생님을 주일 예배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들은 덩달아 신이 났다.

박민석 형제와 김영신 자매는 장점이 너무 많다면서 성도들에게 재능기부를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나의 재능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재능기부를 신청하면서도 나에게 재능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정말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주시면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재능기부를 신청하세요!”

재능기부, 그들에게는 희망이다

2000선교본부 후원사역팀의 중요한 비전 중 하나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것이다. 그만큼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성도들의 재능기부가 선교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자현, 김영희 선교사 부부의 첫째 딸 유진이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다. 유진이는 선교지에서 태어나 선교지에서 자랐다. 학업은 홈스쿨링을 했다. 올해 초 구자현, 김영희 선교사 부부가 국내로 복귀했다. 선교사 입장에서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유진이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유진이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이는 망설임 새도 없이 한국 중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시험을 네 과목이나 봤는데 합격해서 선교사 숙소 인근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침울한 얼굴로 ‘영어 문법이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자란 유진이는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은 오래보다 잘하면 잘했지 실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 같은 영어 교육과정과 어휘가 어색했던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였다.

“홈스쿨링을 했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가르칠까 고민하는데 재능기부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영어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부탁했어요. 그때 미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김미진 성도(S브릿지공동체)가 유진이에게 영어를 꼭 가르쳐주고 싶다고 요청했다. 알고 봤더니 김 집사와 유진이는 13년 전 아웃리치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인연이 둘의 아름다운 만남을 또 한 번 성사시켰다.

“중동 A국 재건을 위해 한 달 동안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 담당 선교사님이 유진이의 부모님이셨어요. 그때 사역이 끝나면 선교사님 집에 찾아가 교제했어요. 유진이가 두 살이었는데 팀원들이 정말 예뻐했어요. 유진이의 이름을 듣자마자 제가 하겠다고 자처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유진이와 김미진 성도는 매주 1회씩 만나서 영어를 공부했다. 영민한 유진이는 금방 영어 문법을 익혔다. 유진이를 포함해서 재능기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은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사역팀의 사례가 200여 건을 넘는다. 성도들의 재능기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김미진 성도는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꼭 나눠야 한다고 권면했다.

“누구에게나 있는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나눴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에게 없는 것 같은 달란트가 나누려고 하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재능기부를 교육, 의사소통,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분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역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급변하는 선교지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재능기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기부가 무엇일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열매 맺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하다. 취미와 직업관련 재능기부도 좋다. 예배 섬김을 잘 하면 예배를, 운전할 때 즐거우면 운전을, 건축설계나 인테리어를 잘하면 그 솜씨를 재능기부 하면 된다. 집에 방이 남는다면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도 좋다. 사진을 잘 찍는다면 사진촬영과 강의를 재능기부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마땅한 재능을 찾기 어려우면 이참에 재능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다. 공들여 키운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반드시 쓰임 받을 것이다.

문의: 2000선교 후원사역팀 070-4949-7886



▲ 일본어예배 청년부가 용산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냈다.



▲ 인도와 네팔 이주민들이 성탄축하 인도네팔연합예배에서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온 누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어르신과 이주민 섬기고, 통일 성탄축제도 개최

올해도 온누리교회는 온 누리와 함께 예수 나신 기쁜 소식을 나눴다. 지난 24일 일본어예배 청년부(박미진, 김선경, 김명자, 박태동, 김수경, 최혁철, 임지훈)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21명과 함께 성탄절을 보냈다. 이날 일본어예배 청년부는 어르신들을 위한 신명나는 공연을 준비했다. 진도아리랑,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 국악 찬양, 스킷 드라마 ‘구원 열차’, 축복송 등을 선보였다. 이영주 과장(용산데이케어센터)은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면서 ‘아멘’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고 했고, 이숙경 요양보호사는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께 복음을 들려주고, 선물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최혁철 형제(일본어예배)는 “조출한 공연에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울컥했다”고 고백했고, 박미진 순장은 “의미 있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서 보람됐다”고 말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냈다. 지난 22일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2018년 성탄축

하 인도네팔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임현태 장로(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표기도, 남양주 온누리교회 다문화공동체의 특순, 김마음 선교사(가명, CCC) 말씀선포, 세레식,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의 축하공연, 선물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마음 선교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선포했다. 삭티 형제(인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통일위원회와 양재 하나공동체는 통일 성탄축제 ‘하나 뭉을 위한 찬양’을 개최했다. 통일위원회가 주최하고 하나공동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됐다. 한터공동체, 양재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 남양주 온누리교회 북사랑공동체, 하늘꿈학교의 ‘하늘꿈중창단’, 두리하나국제학교의 ‘와글와글합창단’, 새희망나루교회 성도들이 참석했다. 통일 성탄축제 하나 뭉을 위한 찬양 행사는 경연, 경품추첨, 시상 및 기념 촬영, 저녁 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연에서는 두리하나국제학교의 와글와글합창단이 우승했다. 이풍우 팀장(하나공동체)은 “남한 사람들과 탈북민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권찬송 기자

2019 청년부 리더십컨퍼런스 ‘The One’

1월 4일부터 6일까지 리더십 1,00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 청년부 비전 공유와 리더십들의 연합을 위한 컨퍼런스 ‘The One’이 오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영산수련원에서 열린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된다. 청년부 리더십 1,000여명(교역자, 순장, 그룹원, 사역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6개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 ‘성령과 말씀’,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성령과

정체성’, 김현미 목사(GIM 대표) ‘성령과 비전’, 김혜영 선교사(밀알복지재단 아프리카 권역장) ‘성령과 선교’,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성령과 기도’, 조준목 목사(길공동체 담당) ‘성령과 헌신’을 주제로 강의한다. 대학부 연합 컨퍼런스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성령의 바람따라 GO!’를 주제로 진행된다.

온누리요양센터 아주 특별한 세레식

지난 26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세레식이 있었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세레 받고 거듭났다. 이날 세레식에는 이강현 목사(양지온누리교회)와 입소 어르신,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주일예배, 새벽예배 등을 통해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신앙성장을 돕고 있다.

106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서빙고 시온홀

106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9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5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106기 두란노 어머니학교에 참석하면 성경적인 가정관과 자녀 교육법을 배울 수 있다. 1주차 ‘성경적인 여성상’, 2주차 ‘아내의 사명’, 3주차 ‘자녀양육’, 4주차 ‘기도하는 어

머니’, 5주차 ‘십자가의 사명’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강사는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한은경 본부장(어머니학교), 김성묵 이사장(아버지학교)이다. 참가신청은 2019년 1월 9일까지 이스쿨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2-2182-9114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신년세미나 개강

두란노바이블칼리지가 풍성한 신년세미나를 개강한다. C. S. 루이스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고 그가 안내하는 순례자의 길을 살펴보는 세미나 ‘본향으로의 여정’이 2019년 1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겸임교수),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C. S. 루이스 영성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1월 1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

다. 문의: 02-2078-3264.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말하고 꿈꾸는 세계인으로 양성하는 ‘요셉 스피치’ 세미나도 열린다. 1월 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초등반(오전 10시~11시 30분), 중등반(오후 11시 30분~오후 1시)으로 나뉘어 강좌가 운영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초등반), 중학생(중등반) 각각 10명이다. 회비는 44만 원. 문의: 02-2078-3456. / 정현주 기자

12월 세례자

■서빙고	유아	김기완 630323	김나겸 170929	김종규 방우리	정하진 170319	김명우 860227
김병현 821128	박강빈 170906	이지환 821115	김영석 이혜진	박지안 170403	정문석 최고야	조원록 780812
민경준 880212	박영진 김나형	이현숙 691103	김리운 161210	박상영 이우리	차예나 170201	정아름 890114
신상천 771104	박노엘 171005	이효정 810702	김기역 박주은	엄태준 170123	차현학 이아나	유아
이순이 580310	박원규 이예원	정남애 490515	김승연 170610	엄재훈 유지은	최사론 170711	김주하 180326
이진숙 451222	신동해 170321	최병호 650406	김진우 김상희	오주아 180412	최현수 김이레	김윤식 김민주
장혜원 861201	신내철 신영희	허경숙 640711	김시은 171113	오성진 임명신	황로이 171115	
전종건 330124	조정운 170703	입교	김대은 이지은	옥이안 170126	황현수 이지혜	J4U
최경숙 651107	조동희 김진아	신명화 640924	김이서 160628	옥승호 박신영	황혜성 180313	이규리 941214
최민영 814030	한 슬 180322	이지석 770716	김권섭 김유리	이기를 161211	황성현 진혜영	
한승훈 700305	한승진 임지영	유아	김지안 171113	이진의 김산나		Pole2
한정혜 691208	김고원 161004	김영환 이동은	김완식 조소영	장시내 170128	■대학청년부	입교
허준영 900824	■양재		김하엘 170119	장동진 김정주	여호수아	박은혜 960305

작은 예수
40일새벽기도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 12월 15일 토요일

성령세례(4) 성령의 인치심

엡 1:13~14, 행 10:38~48

이재훈 목사

성령으로 충만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자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조용히 계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내 영에 임하신 성령님은 정신적 세계와 육적인 습관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는 노력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붙이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

전보다는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성령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세례와 능력 부여주심을 ‘인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기업들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

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영원한 미래를 이 땅에 가져와서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을 때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에게 버림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

니다.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속감을 가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고, 외롭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안전함에 대한 보증입니다. 중요한 서류는 도장을 찍고 테이프를 붙여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봉인합니다. 우편물이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된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동안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7일 월요일

성령세례(5) 생수의 강

요 1:29~34, 요 7:37~39

이재훈 목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29절)이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30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는 동산이 펼쳐집니

다. 생명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세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사건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거짓된 만족감입니다. 거짓된 만족감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쏜대를 잡

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체험과 깨달음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다윗도 시편에서 주를 목말라 합니다. 이러한 목마름과 갈망이 살아 있는 영혼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림’, ‘스스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판’ 두 가지 악(렘 2:13)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남자로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같이 단단한 마음일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 7:37-39).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강이 흐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성령세례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와 성령세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 12월 18일 화요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일 2:27~28

이재훈 목사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 줌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불태우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경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서 나타나는 진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곧 진리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영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육적인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

인지 깨닫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성적,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성과 올바른 품행은 받아들이지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신화로 인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보다 베스트셀러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상에 쉽게 흔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얽은 지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한정 짓는 것입니다. 자

신의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사 11:1-2).

이사야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를 언급하는 것은 육체의 형태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 12월 19일 수요일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 8:1~4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초대법 즉, ‘양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양심의 확장판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율법적 조항들을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율법적 조항을 통해서 탐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규정하지만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대가는 단 하나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

에서 죄인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던 인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정죄 받고 심판에 처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로마 8:1~2). 율법의 한계 아래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해방 즉, 영적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그의 아들 안에서 심판하셨습니다(로마 8:3). 예수님이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우리 육신의 죄가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즉,

죄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죄성을 없애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로마 8:4).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서운 죄의 동력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심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명한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유함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0일 목요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로마 8:5~14, 갈 5:16~17

이재훈 목사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결정, 의, 생각, 습관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법, 뜻, 인도하심,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뜻을 알 수도 없

습니다. 복종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삶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육신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육신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

합니다.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혼에 깊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분별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고, 우리의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혼과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이 몸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정신을 이끌고 몸을 이끄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몸을 가혹하게 하고 고행을 통해서 몸을 괴롭히려는 것

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여겨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놀랍도록 우리의 영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모든 성향을 불로 불태우고 제어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정화시키듯이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육신의 행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아하던 육신의 안 좋은 습관들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제거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뤄질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
40일새벽기도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 12월 21일 금요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살전 5:16~23

이재훈 목사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성령님의 초월성, 불은 성령님의 거룩성, 비둘기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나타냅니다. 특별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를 단번에 사로잡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비둘기의 특성과 많이 닮았습니다. 비둘기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새입니다. 사람이 먹이를 쥐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맞춰야 하는 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민감성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기 어렵습

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났고, 성령세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부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에게서도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어울리지 않는 죄를 택하고,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엡 4:30).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비방, 분노, 악의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야 합니다. 사실 이것조차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과 죄를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에 기쁨의 영, 기도의 영, 감사의 영이 충만하지 살피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

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감사하지 않은지, 왜 기도를 잃어버렸는지를 살피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속에 당연히 있을 거라는 오만을 버리고, 내 영혼에 기쁨, 감사, 평화, 평안, 용서, 친절함이 가득한지 아니면 악독, 분냄, 쓴뿌리, 죄악의 잔재, 탐욕이 가득한지 살피야 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멀리하고 끊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 12월 22일 토요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엡 4:1~6, 행 2:42~47

이재훈 목사

사람들은 하나 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 하나 됨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 됨은 세상 사람들의 하나 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성령 안에서 살도록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는 그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성

령 충만해집니다. 서로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몸에 연약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 몸은 연약한 부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위가 아프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합니다. 몸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돕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각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

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고,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도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멸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 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들을 잡는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세리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힘든 마태와 시몬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갈등은 서로 다름에 대한 불

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 교육 수준, 성격의 차이, 의식 등을 뛰어 넘어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엡 4:1~3).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 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 됨을 매 순간 기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12월 24일 월요일

성령의 은사(1)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

롬 12:4~8

박종길 목사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롬 12:3).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

고, 귀하게 여겨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 얼마나 귀한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롬 12:6~8).

사도 바울은 같은 은혜지만 은사는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은사를 설명하면서 몸에 비유했습니다. 손, 머리, 다리, 몸 속 장기(臟器)들

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듯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지 말며, 자신의 은사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자신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과 계획에 따라 주신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벧전 4:11). 은사를 주신 분의 뜻대로 목적에 맞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

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지, 잘 하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 하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12월 26일 수요일

성령의 은사(2)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은사

엡 4:11~12, 고전 12:4~11

박종길 목사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고 많은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한없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혹 시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와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고린도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은사를 성도 공동의 유익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

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면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면서 자기만족과 자기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함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

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품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은사는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군림하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을 낮추고 주인을 높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영광을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을 뿐 아니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도 공동의 유익과 그리

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 은사는 결론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주어졌는데 잘 사용하지 않거나 물어두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 점점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격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결론이 아니라 진행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7일 목요일

바람처럼 불처럼

행 2:1~6

이재훈 목사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온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교운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믿고 체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있는 곳이 교회였기에 세상은 교회를 주목했고,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회개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죄를 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담대한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폭발력 있는 힘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되지는 않지만 영속

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한 성령의 부어 주심은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증언들을 통해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강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내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설명한 상징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악이 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거룩

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소진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아닌 자신의 불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은 지성의 불꽃도 태웁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셋째,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 전서의 방언과는 다른 외국 언어입니다. 복음의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방언은 창세기 11장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혼잡해진 언어가 성령의 임재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꿈꾸고 구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가게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 12월 28일 금요일

양자의 영, 기도의 영

롬 8:15~27

이재훈 목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빛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의 직책과 이름을 언급합니다. 또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달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한다면 종의 영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단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양자의 영이 우

리에게 있기에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다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롬 8:26-27).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며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장로칼럼

입양의 영광



정태경 장로
(제이홀)

지난 2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 아이홀에서 온누리교회 제이홀 ‘입양 세미나’가 개최됐다. 제이홀 입양 세미나는 1년에 3번 열린다.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입양 방법과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를 입양한 가족들의 간증도 듣는다. 이번 입양 세미나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입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도 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나는 온누리교회 제이홀 담당 장로로 섬기고 있다. 입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죄인인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우리의 신분을 고아에서 양자로 바꿔주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 때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세상에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아가 됐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줘야 한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입양이다. 온누리교회 제이홀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분들이 많다. 그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준비하고, 관련 세미나를 듣고, 교육도 받는다. 사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

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들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입양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입양한 부모들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크리스천의 입양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입양은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자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양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입양은 선교이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행위다.

우리는 입양과 관련된 법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양과 관련된 법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입양특례법’을 한 국회의원의 발의로 개악하려고 있다. 실제로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입양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여파로 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모든 아이들이 가정의 품에서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가 입양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매년 어린이 보호시설에는 3천 명의 퇴소생들이 발생한다. 그들 중에서 600여 명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고, 친권이 없는 입양 대상 아동들이다. 폴 패닝턴 대표(미국 Hope for Orphans)가 수년 전 온누리교회 방문 중에 이런 말을 했었다.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보호 아동들이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권사칼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



윤승의 권사
(분당A공동체)

남편과 함께 일하는 세를 섬기고 있다. 일하세는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의 약칭이다. 일하세에서는 일하세, 아카데미와 굼(GUM)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도곡교육관, 부천 온누리교회, 수원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시드니 온누리교회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됐다. 일하세, 아카데미에서는 일터영성을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신앙과 삶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늘 주님께 물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일터 가운데 세우신다. 많은 분들이 일하세,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삶과 직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했다.

굼(GUM)예배는 매주 토요일에 드리고 있다. 총 4주 동안 진행된다. 첫째 주에는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둘째 주에는 재정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주님이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강의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다. 강의를 듣는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재정 강의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에는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마지막 주에는 일터영성에 대해 배운다. 4주 동안 진행된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아무 문제없는 형통한 인생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부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나는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마 25:21).

‘잘했다’는 일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탁월해야 한다. ‘신실한’은 일의 태도를 의미한다.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직장에서 동료와 관계를 잘 맺는 것도 포함된다.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정직하고 충성했을 때 주님은 더 큰일을 맡기신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확장될 것이라 확신한다.

신앙에세이



이길탁 목사
(요셉공동체)

서울역은 항상 붐빈다. 도시의 랜드마크와 같이 활기찬 모습을 띄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심 속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면이 가려져 있다. 서울역 앞에 있는 동자동이 바로 그런 곳이다. 나는 ‘2018 사랑애틀눔 행사’를 준비하면서 난생처음 동자동을 방문했다. 동자동은 서울역 앞 고층 건물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서울역과 메트로 폴리스를 상징하는 문명의 화려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동자동들을 상징하는 인생의 고단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의 양극성은 내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었다. 동자동에는 저마다 어려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고 있었다.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 지역 목사님을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에 들어서니 큰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다. 조명이 켜져 있긴 했지만 들어가는 통로만 밝을 뿐 방 안은 매우 어두컴컴했다. 방은 한 사람 누우면 딱 찰만큼 매우 비좁았다. 쪽방촌 주민들은 그 작고 어두운 방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아요.”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행복한 사역 ‘사랑애틀눔’

게 “살려달라, 도와달라,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외치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 할머니의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마음이 매우 아팠다.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와 사랑애틀눔 행사를 준비했다. 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했다. 쌀과 쉽게 상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반찬을 하나하나 마련했다. 물품만 전달하지 않고 마음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대학청년부는 사랑애틀눔 행사를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로만 여기지 않는다. 이 행사가 청년들의 마음에 큰 은혜로 기억되는 멋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대학청년부는 청년들이 사랑애틀눔 행사를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배우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이 행복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도한다.

매년 우리가 섬기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도와야 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역에 자원하는 청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사역이 끝나고 여러 간증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지역교회 이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날만큼은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지역교회 청년들이 된다. 교회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동자동은 도심 속 화려함에 가려진 암울한 곳이었다. 그 그늘진 곳에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다. 청년들은 복음을 삶과 생필품으로 포장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줬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어려운 이웃들은 행복하게 웃음 지었다. 청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10~14절).

천사들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

식이었습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군대가 무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영광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영광을 누군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영광을 누군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만 온전히 영광이 올려드려질 때 그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은 어지러워진 질서와 타락한 질서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정, 일터, 나라와 민족, 열방과 나누는 복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건강칼럼

이동엽 원장의 겨울철 건강관리



이동엽 원장
(서초D공동체,
참포도나무병원장)

겨울철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야외활동을 꺼리게 된다. 근육도 긴장해서 척추나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은 눈이나 빙판에 의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뇌졸중 역시 겨울철에 환자가 급증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다. 추운 겨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낙상과 척추·관절 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겨울철 눈과 빙판길에서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뼈와 근육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발생률이 높다. 어르신들에게 발생한 낙상은 단순한 찰과상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골절을 동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조기진

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척추가 찌그러져 주저앉은 압박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은 엉덩이 관절 주위의 골절을 뜻한다. 주로 골다공증이 심한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한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절에 취약하다. 건강한 뼈는 콜라겐, 칼슘, 인 등 구성 물질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는 반면 골다공증의 경우 이런 물질들이 점차 빠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진다. 골밀도가 낮아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외상이 발생한다.

허리통증도 기온이 낮은 겨울에 더욱 쉽게 발생한다. 겨울철 우리 몸은 체온 보존을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해서 근육을 더욱 경직시키고, 더불어 허리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리가 약해지게 된다.

이렇게 수축되고 경직된 근육과 인대는 척추를 압박해서 허리통증을 유발하고, 약해진 허리는 척추질환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겨울에 느끼는 허리통증은 일시적인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보통 근육통의 경우 1~2주일이면 사라지지만, 이 이상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방

치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무릎은 뼈를 둘러싼 피부가 얇고 그 뼈 뒤에 숨겨진 연골도 충격에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경우 연골이 쉽게 딱딱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겨울철 척추·관절 질환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한다. 춥다고 활동량을 줄이면 오히려 몸이 움츠러들어 근육이 더욱 긴장되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다. 걷기 역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척추·관절의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다.

뇌졸중도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환자가 급증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이다. 추위로 수축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신체 한 쪽이 갑자기 마비되거나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어눌한 발음 등이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십 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을 뇌허혈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만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주로 50~60대에 가장 많이 발견되

는데 일단 파열되면 발병자의 거의 반수가 병원 도착 전이나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하는 머릿속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겨울철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낙상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고 지팡이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굽이 높지 않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늘진 곳에는 빙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 시 주의해야 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본인의 골밀도 상태를 1~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압박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이다. 성도님들의 새벽 발걸음을 조심하기를 기도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14 온누리신론

게시판

2018년 12월 30일(주일) | 제1227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를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굴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직원 모집 업무: 선교사 숙소 관리(상도동 소재) 자격: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50세 이상 남자 (건물 관리 경력 우대) 급여: 4대 보험 보장 지원 및 문의: 홍범식 장로 (010-5004-3191)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추명환 성가사(010-5304-7039) 홈페이지: http://www.ommc.kr QT 베이직 세미나 일시: 1월 7일(월) 10:00~16: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준비: <생명의 삶>1월호, 필기구, 성경책 회비: 4만 원 (중식비 포함, 12/31(월)까지 홈페이지 등록 및 입금 시 3만 원) 강사: 김종민 목사, 박성은 목사, 신동식 목사 내용: 12강 QT란 무엇인가? 2강 QT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강 QT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상: QT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롱기도회 일정 안내 대상: 나라와 통일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여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스페인어예배 매주일 14:00 도곡교육관 온유홀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더샘물학교 신원입생 추가모집 모집: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유치원 5~7세, 초등 1~5학년) 더샘물학교(초등 1~3학년, 중 1) 문의: 은혜샘물(031-283-0252) 더샘물(031-8055-8339) www.smca.or.kr 24기 대학, 유학생 인투훈련학교 강사: 하신주선교사 외 대상: 자아상과 영적 회복을 원하는 대학생, 유학생등 일시: 1월 28일~30일(월~수, 2박3일간) 장소: 탐비전빌리지 (불광동) 문의: 010-9291-8384
---	--	--	---	--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유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12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29,25: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12/16,23,30: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중·고등부 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국제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키즈 오후2시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멘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	---	---	--	--	---	---	--



KNOCK 미니휴먼다큐 사우팅 브라덜

생명을 노래하는 아저씨 목사님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응원하며 거리에 생명을 전하는
이음교회 정찬석 목사의 이야기



“한 명의 아이라도 기쁨을 누리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12월 30일 주일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www.facebook.com/cgntv.knock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